

도서관은 정직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되는 '대학도서관 장서통계현황'을 보고-

최 정 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目 次

- I.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II. 한국의 도서관통계자료를 보니
- III. 장서확보에 열을리는 사람들
- IV. 장서통계는 정확해야 하고 정직하게 발표되어야 한다

I.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금년(1997년)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모두 3천7백16만섬으로 이는 단군이래의 최대풍작이어서 '풍년농사 2연패'를 달성할 전망이다라고 국내신문¹⁾과 방송에서는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같이 쌀농사의 수확량을 위시해서 국가의 주요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자료로 삼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의 조사방법은 1973년까지는 행정통계에 의존했으며, 1974년부터 행정통계와 표본조사통계를 병행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을 대충 소개하면 10a당 생산예측지 = m²당 포기수 × 포기당 유효이삭수 × 이삭당 완전날알수 × ... 등으로 계산해서 쌀생산의 추정치(推定値)를 산출한다고 한다.²⁾

이와같은 조사방법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오차(誤差)의 발생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각 일선 행정기관마다 업무량이 많다보니 이를 등한시하게 되고 조사를 위한 전문요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조사기준의 몰이해와 조사자의 주관성 등에 의해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³⁾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지역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⁴⁾ 도서지방이나 산간벽지 등에

1) 조선일보(1997. 10. 8)등 각 일간지에서 취급.

2) 송문섭, "쌀생산량은 어떻게 조사되나", 「통계이야기」(한국통계학회편), 서울: 자유아카데미, 1993, pp.93-102.

3) 송문섭, 앞의 책.

4) 농림부는 지난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전국 5천개 표본포구에서 벼작황을 실측조사한 결과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보(300평)당 예상수확량도 5백9kg으로 지난해 기록한 사상최고치(5백7kg)를 경신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1997. 10. 8참조)

서 짧은 기간에 정확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불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⁵⁾

필자가 이와같이 통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개선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되고 있는 ‘도서관통계’는 과연 성실하며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는지 그 진실성 여부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이다.

“통계의 정확성은 후진국의 지표와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선진국일수록 그 나라의 통계가 정확하게 발표되고 후진국일수록 엉터리통계가 난무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사실, 통계측정기술의 발달은 한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GNP의 6%정도가 통계측정에 관련된 비용으로 쓰인다.⁶⁾

필자가 본란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통계측정을 위해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자 함이 아니다. 그리고 쌀농사의 수확량이 얼마나 정확하게 발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보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발표되는 ‘도서관통계’가 과연 얼마만큼 정직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서관인이 여기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데 그 뜻이 있다.

II. 한국의 도서관통계자료를 보니

지금 한국에는 정부간행물 또는 기관간행물을 통하여 발표되는 ‘도서관에 관한 현황 및 통계자료’는 10여종이 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

- 『한국도서관통계』, 1994~95, 한국도서관협회, 1996. 199p.
- 『1996 대학도서관정보화현황』, 교육부 교육정보관리국, 1996. 177p.
- 『교육통계연보』, 1996,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1996. 861p. (3-6. 전국도서관현황)
- 『교육통계편람』, 1996, 교육부 국립교육평가원, 1996. 247p. (II. 4 사회교육, 도서관)
- 『한국도서관전산화현황』, 1994, 국립중앙도서관, 1995. 82p.(이후 ‘전산화현황’은 한국도서관협회 발행 『한국도서관통계』 부록으로 발행)
- 『한국통계연감』, 1996, 통계청, 1995. (제16장: ‘교육 및 문화’편에 도서관현황 수록)
- 『○○시(도)군 통계연감』, 1995~96. (각장의 ‘교육 및 문화’편에 도서관현황 수록)
- 『전국공공도서관현황』,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 1995. 122p.
- 『韓國出版年鑑』 1~2권, 대한출판문화협회, 1996.(제1권, 제2편 ‘통계’란에 도서관현황 수록)
- 『회원교편람』, 1995년도, 전국사립대학교도

5) 송문섭, 앞의 책, p.94.

6) 이재창, “숫자놀음과 통계의 함정”, 『과학동아』, 1989.

7) 崔貞泰, “國·公立大學圖書館 比較評價研究”, 『圖書館學論集』 제26호(97.여름), pp.23-56.

서관협의회, 1995. 277p. (각 대학별로 현황 수록)

· 『國立大學圖書館報』, 제14집(1996), 국립대학교서관협의회, (제1집(1983)부터 “대학교서관기본통계”란을 설정하여 매회 수록)

이상과 같은 출판자료에서 도서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고자 할 경우 가장 표준이 되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 예로 교육부내 국립교육평가원에서 1996년 9월과 11월, 거의 동시에 발행한 「교육통계연보」와 「교육통계편람」을 보면 1996년 현재 전국의 도서관(도서실포함)수는 8,701개와 7,890개로 게재되어 있어 두 종류의 자료에서 811개 차이가 난다.⁸⁾

이 경우, 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시기에 책명이 서로 다른 출판물을 발행해야 하고, 통계수치를 서로 틀리게 발표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와같은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은 교육부의 도서관숫자 세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는 300여개의 공공도서관과 380여개의 대학도서관⁹⁾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장서현황’을 보면 더 많은 혼란을 준다.

대학교서관의 장서보유량은 곧 그 대학의 기본재산이다. 그러므로 장서보유량의 다과(多寡)에 따라 그 대학의 규모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대학교서관을 평가하는 첫번째 잣대(measure)로 삼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장서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수확예정인 쌀의 낱알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어림수의 표본조사가 아니라 날마다 일지(日誌)에 수서량을 기록하고 실물을 대조 확인하는 전수조사(全數調査)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매일 확인되고 있는 도서관 장서수가 아무런 이유없이 어떤 해에는 상당수가 줄어들고, 또 어떤 해에는 상상밖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도서관은 신뢰성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⁰⁾

그리고 ‘장서현황’은 대개 통계를 전담하는 전문사서가 있어서 일일통계, 월말통계, 연간통계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도서관 주요정책을 기획하는데 핵심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아무리 선진화를 외치고 세계화의 환상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가 되는 기본장서수가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고, 또 잘못 알려지고 있으면 도서관의 진실성은 허구일 수 밖에 없다.

예컨대, 어느대학이 1995년 당시 70만책의

8) 최정태, 앞의 책, p.24.

9)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11개 도서관 통계자료를 대조해 보면 수치가 모두 달라 어느 자료가 가장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10) 도서관의 장서확충은 대부분 ‘구입’에 의존하지만 ‘수증’, ‘교환’ 및 ‘기탁도서’에 의해서도 충당된다. 한국의 상황에서 계속 장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폭적인 예산증가가 비례적으로 상승하거나 특별한 ‘수증’, ‘교환’활동이 기록되어야 한다. 반면에 장서증에서 ‘제적(weeding)’ 작업이 이루어져 축소되는 경우에도 그 숫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이 없이 장서량의 가감(加減)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통계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같은해 기준, 세계의 저명한 도서관 안내책자인 「The World of Learning」에서는 204,953책¹¹⁾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World Guide to Libraries」에서는 205,000책¹²⁾으로 기재되어 결국 대학을 3분의 1로 평가절하하고 있다면 여기서 아무리 첨단정보를 외치고 디지털을 부르짖어도 모두가 헛소리일 뿐이다.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대학도서관을 남 앞에 내어놓을 경우, 무엇을 가장 먼저 앞세울 것인가? 바로 ‘장서’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장서현황의 통계가 기관마다, 책자마다 서로 틀리게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¹³⁾

III. 장서확보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

최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의 안팎에서 자체평가 또는 타의에 의해 평가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학의 평가를 특성과 질(質)을 고려하기 보다 계량적이고 수치평가를 우선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은 어쩔 수 없이 장서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론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불용도서(dead books)가 포함된 양(量)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良質)의 적합한 도서(right books)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에 맞춰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1천여만책의 장서를 확보하고¹⁴⁾ 일본의 저명대학들이 장서 5~6백만책을 보유하고¹⁵⁾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물장서를 구축하여 장서 100만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대학도서관이 장서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데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고려없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짧은기간 안에 ‘땀튀기 작전’으로 아무책이나 끌어모으거나, 숫자를 채우는데에만 급급한다면 장서구성의 의미는 폄하(貶下)될 수 밖에 없다.

1997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서 100만책을 보유한 대학은 모두 6개교에 이른다.

서울대학교가 1978년 3월 16일 한국 최초로 장서 100만책을 돌파하였다.¹⁶⁾ 그 후 18년이 지난 1996년 12월말 현재 서울대학교 (편의상

11) The World of Learning 1995, 45th ed., Rochester, Kent : Europa Publications Limited, 1995, p.956.

12) World Guide to Libraries, 12th ed., Munchen·New Providence·London·Paris : K.G. Saur 1995, p.369.

13) 1995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한국도서관통계」(한국도서관협회, 1996), 「대학도서관정보화현황」(교육부, 1996), 「國立大學圖書館報」(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6) 이 세가지 자료를 가지고 특정대학을 지정하여 장서수, 사서수, 예산 등을 비교해 보라. 어느것 하나 완벽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14) 1995년 현재 북미에서 하버드대가 1천3백만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으며 예일대는 9백6십만책, 토론토대는 6백7십만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으며 연구도서관협의회(ARL) 회원교 중 108위에 해당되는 콜로라도 주립대는 1백6십만책을 보유하고 있다. (「ARL Statistics」(Washington D.C. : ARL, 1996), p.55)

15) 1995년 현재 東京大(6백8십만책), 京都大(5백1십만책), 日本大(4백2십만책) 등을 비롯하여 100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대학이 35개에 달한다. (‘95大學ランキンク; 「大學教育」(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6. 7·8, p.161)

16) 한국일보(1978. 3. 21) 및 대학신문(1978. 3. 27) 등에서 ‘100만권 장서’ 확보에 따른 축하의 메시지가 있었다.

‘Sn대학’으로 칭함) 총장서수는 1백9십만책에 이르고 있다.¹⁷⁾ 이밖에 1997년 2월 28일 현재 장서 100만책을 확보한 대학도서관으로 Ko대(1백2십1만책), Ys대(1백9만3천책), Ew대(1백8만7천책), Ho대(1백만7천책) 등 서울에 소재한 4개의 사립대학이 있으며¹⁸⁾ 최근 지방의 국립대학으로서 Kn대학이 1997년 8월 29일 지방에서 최초로 장서 100만책을 돌파하였다¹⁹⁾고 한다.

필자는 장서 100만책을 확보한 이상의 6개 대학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장서증가량을 관찰하고 연간증가량을 비교하면서 이들 도서관이, 장서 100만책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을 확인코자 한다.

Sn대학의 경우 장서 100만책에서 190만책을 확보하는데는 18년 10개월(1978.3.~1996.12)이 소요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대학도서관은 국내 최대의 도서관으로 장서보유량뿐만 아니라 연간 증가되는 장서수도 최고를 자랑한다. 국내 우수한 지방 국립대학도서관의 연간 수입책수가 종전까지 3~4만책인데 비하여 Sn대학은 1978년 장서 100만책을 확보한 후 19여년간 연평균 4만7천책 증가에 그쳤다. 그러한 도서관이 「한화그룹」으로부터 장서기금 250억

원의 출연²⁰⁾을 계기로 연간장서증가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났다(<표> 참조).

장서의 확충이 이와같이 어려움을 수반하는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Ko대학의 경우는 한해에 갑자기 11만9천책이 증가되었다가 다음 해에는 7만6천책이 줄어들고, 다시 그 다음해에는 1만3천책이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 Ew대학은 95년 한해의 도서증가량이 장서 1천3백14만책을 소장한 미국의 하버드대학 연간수서량(27만7천책)²¹⁾과 맞먹는 26만6천책을 수서하였다고 믿기지 않는 실적을 밝히고 있으며, 또 Ho대학은 1993년 4월 30일 당시 44만책을 확보하고 있던 도서관이 불과 3년 10개월동안 56만책을 확보하여 장서 100만책을 돌파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 있는 엄청난 저력을 과시했다. 또 Kn대학의 경우는 경이롭게도 불과 8개월만에 13만6책을 확보하여 장서 100만책을 돌파하였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같은 규모의 재원과 시설 속에서 비슷한 예산과 비슷한 인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의 어느 다른 국립대학에서는 ‘100만권 장서’ 확보라고 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다.²²⁾

17) 「國立大學圖書館報」(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15집(1997), p.141.

18) 「회원교편람」(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7.

19) 조선일보, 한국일보, 대구일보, 영남일보(1997.8.28~30)

2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1990년 서울대학교도서관의 장서확충을 위해 총250억원을 출연하기로 서울대학교와 맺은 약정에 따라 90년도에 80억원, 91년도에 70억원, 92년도에 50억원, 93년도에 5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약정액을 모두 완료한 것이다. 「김승연장서기금」은 장서확보의 문제해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91년에 7억8천만원, 92년에 16억8천만원, 93년에 22억원, 총 46억6천만원이 도서관 장서확보기금으로 이미 충당되었다. (「國立大學圖書館報」제12집(1994), pp.208~209)

21) ARL Statistics, ibid, p.56.

22) 최정태, “아! 100만권의 藏書”, 「부산대학교 교수회보」제78호(1997. 10. 15), pp.16-17(본문내용은 本誌 20쪽 참조)

〈표〉 장서 100만책 보유 대학도서관 현황
(최근 5년간 증가실적)

	'92 장서수	년간 증가수	'93 장서수	년간 증가수	'94 장서수	년간 증가수	'95 장서수	년간 증가수	'96 장서수	년간 증가수	'97 장서수
기준일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1.		1996.12.31.		1997.8.28
Sn대학	1,568,399	80,178	1,648,577	76,279	1,724,856	68,890	1,793,746	109,499	1,903,245	-	-
Kn대학	613,387	39,382	652,769	58,926	711,695	54,800	766,495	97,173	863,668	136,332	1,000,000
기준일	1993.4.30		1993.12.31.		1994.12.31.		1996.2.29.		1997.3.1.		
Ko대학	1,139,130	14,594	1,153,724	119,002	1,272,726	-76,147	1,196,579	13,766	1,210,345		
Ys대학	991,909	-169,307	822,602	58,149	880,751	149,631	1,030,382	63,407	1,093,789		
Ew대학	698,292	21,235	719,527	68,009	787,536	266,942	1,054,478	35,496	1,089,974		
Ho대학	440,258	53,308	493,566	221,914	715,507	131,549	847,056	160,581	1,007,637		

* 참고자료 ① 國立大學圖書館報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3~1997
② 회원교편람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3~1997

IV. 장서통계는 정확해야 하고 정직하게 발표되어야 한다

장서의 증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일정한 성장지선으로 서서히 상승하는 것이 통례이다. 풍년과 흉년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쌀생산의 수확예정량과는 전혀 다르다. 인간의 모든 지식자료를 축적하며 세계의 문헌정보를 통괄하고 있는 도서관의 장서수가 터무니없이 한해에는 늘어나고 또 한해에는 줄어든다면 그 도서관은 근본부터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점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했고 소홀히 취급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도서관통계에 대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도, 인력도 없고 자료를 검증(evidence)하고 통제(control)할 실질적인 감독기관이 없으며,

도서관 장서속에서 더불어 살고있는 사서진에서조차 실물장서(physical collection)의 숫자통계에 관한 인식이 거의 없기²³⁾ 때문이다.

도서관에 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전국의 모든 도서관을 망라하는 「한국도서관통계」를 발행하여 통계의 명맥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일정양식에 의하여 단순히 수합해서 편집하는 정도이고 자료의 내용을 검증하고 통제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밖에 교육부,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도서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도서관 통계자료를 독자적으로 기준일자를 정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 역시 타관과의 공조(共助)없이 자관 편의중심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제작하고 있기

23) 실제로 필자가 대학도서관의 사서들과 대화중에 그 대학의 규모를 알고 싶어 소속대학의 장서수를 물어보면 대체로 모르고 있거나 엉뚱한 대답을 해온다.

때문에 양식(forms)이 통일되고 있지 못하고 도서관에서 꼭 갖추어야 할 요소가 결여되기도 한다.

또한 사립기관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해마다 발행하는 「韓國出版年監」에서도 도서관의 제반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것도 동협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내지 한국도서관협회의 자료를 간접인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일차자료(primary material)로서 가치가 없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설립주체에 따라 이를 통괄, 협의하는 그룹으로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와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두 협의회에서도 각자 독자적으로 마련한 통계표를 사용한다.

전자는 1963년 2월에 결성되어 1996년 2월 말 현재 회원교가 48개교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1983년부터 「國立大學圖書館報」(제1집)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1997년(제15집)까지 계속 지금도 발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국, 공립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여기에 기록되는 공통적인 현안사항과 관련교수 및 현장 사서들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회원도서관 기본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되는 통계는 십수년간 일정기준에 따라 같은 양식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서 대학도서관을 연구하는 학자나 도서관 실무진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전국의 사립대학도서관을 중심

으로 상호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생된 단체로서 1997년 4월 25일 현재 67개 회원교(79개 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회원교편람」을 발행하고 있다. 이 자료는 「國立大學圖書館報」와 달리 논문이나 기사 등은 배제하고 단지 회원교 상호간의 정보교환자료로서 각 대학별 직원들의 명단 및 전화번호와 함께 각 대학의 장서, 시설, 직원 등 도서관 기본통계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공립대학의 통계보다 작성시기가 일천하여 통계작성 기준일자에서 일관성이 없고(<표>참조) 양식의 변화가 잦아 일정대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통계의 발표내용이 국공립대학처럼 장서, 시설, 인원 ... 등과 같이 요소별로 취합, 편집하지 않고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발표하여 자료의 내용만을 가지고 볼때 오히려 신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각 대학별 단위로 내용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대학마다 서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일일이 비교평가하기에는 시각적 관찰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필자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도서관의 기본통계를 한묶음 속에 같은 양식으로 통합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지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대학도서관비교평가」 책을 발행한 바 있다.²⁴⁾ 책의 내용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이상한 관습과 제도적 여건으로 인하여 46개의 국,공립대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조사할수 밖에 없었지만, 미국이나 일본 선진 어느나라에서도 국·사립을 구분하여 제 각각 통계

24) 최정태편, 「대학도서관비교평가: 전국 46개 국·공립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부산: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7), 69p.

를 내지 않는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가적 개혁적 차원에서 통계만이라도 국,공,사립대학을 한 울타리속에 통합토록 해야 한다. 자의적 실천이 어렵다면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만일 구분이 필요하다면 종합대학군, 단과대학 규모의 군, 내지 교육대학, 특수목적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그룹화 시킨다면 통계의 명분도 있고 유용성에도 도움이 클 것이다.

진정한 대학의 평가가 걸치레와 구호에만 그쳐서 아니듯 대학도서관의 평가에서도 허례와 가식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통계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자 임의대로 발

표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포맷에 일정한 기준과 날자를 통일하여 원칙에 따라 검증과정을 거쳐 정직하게 발표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일은 도서관이 가는 바른 길이며, 동시에 도서관이 이용자들로 부터 신뢰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굳게 믿는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은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도서관의 기본장서를 중심으로 이용자와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그들이 하는 봉사의 정신과 더불어 그곳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내용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우리 도서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1,000여 단체회원과 1,5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2. 보내실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60-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
전화 : (02)535-4868 FAX : (02)535-5616
PC통신 (나우누리) kla1 (하이텔) klanet
인터넷메일 klanet@hitel.net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 편집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도서관문화 편집실

(本誌 '논단 : 도서관은 정직해야 한다'의註 22)관련)

“아! 100만권의 藏書”

(최정대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나는 언제부터인지 내 손지갑 속에 15cm크기의 플라스틱자를 지니고 다닌다. 이 조그마한 자는 미국 듀크(Duke)대학을 다녀온 어느 교수가 그 대학도서관을 방문하고 거기서 얻은 것을 나한테 한 개 나누어 준 것이다. 볼품은 없지만 이 물건은 듀크대학도서관이 1992년 4월 10일자로 장서 100만권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한쪽 면에는 도서관 건물의 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귀를 적어 놓았다.

“Even a Collection of 4 Million Starts with a Single Book” -Duke University Libraries. 4 Millionth Volume Celebration April 10, 1992-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cm와 inch눈금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

- | |
|---|
| 1992 : Four Millionth Book - John Donne. Poems. 1633. |
| 1979 : Three Millionth Book - Samuel Purchas. Purchas his Pigrimes and Pruchas his Pilgrimage. 1625-1626. |
| 1969 : Two Millionth Book - Pliny the Elder. Naturalis Historia. 1476. |
| 1950 : One Millionth Book - Johann Rudolff Ochs. Americanischer Wegweiser. 1711. |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장서현황을 보면 서울대학교도서관이 1978년 3월 16일 장서 100만권을 돌파한 것이 최초이다. 당시 국내신문은 사설로서 또는 취재기사로서 축하를 하면서 100만권제의 책은 서양사학과 오인석 교수가 신청한 ‘분쟁의 씨앗’, 전 13권(독일 : 크라우스·리프린트사, 1976년 발행)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한국일보 1978. 3. 21 및 대학신문 1978. 3. 27.) 그 후 20여년이 지난 1996년 12월말 현재 서울대학교 총장서수는 1백 9십만권에 이르며, 부산대학교 장서수는 79만권에 달한다.(국립대학도서관보 제15집(1997))

지난 8월 하순, 나는 교수회 일로 교수회장과 함께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을 만난 일이 있다. 그때 총장의 말씀이 부산대도서관의 사정을 물으면서 경북대는 금년 8월중에 장서 100만권을 돌파한다고 하였다. 경북대학교라고 하면 우리 대학교와는 친교적이면서 경쟁상대인 관계여서 서로 대학의 개원을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걸고 앞서려고 하는 사이가 아니던가. 도서관만 하여도 10년전 1987년에는 우리대학의 장서가 45만 8천권인데 비하여 경북대는 41만 9천권이였다. 그리고 5년전인 92년에는 우리대학이 61만 5천권이요 경북대가 61만 3천권이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앞서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그 다음해부터는 경북대의 장서가 우리를 추월하면서 1996년말 현재 우리대학이 79만권을 확보할 때 경북대는 86만권에 달해 우리보다 7만권을 앞서고 있었다.

86만권의 장서가 불과 8개월만에 어떻게 100만권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경북대 총장의 말대로 경북대학교도서관은 예상보다 빨리 1997년 8월 29일 15시 30분 「장서 100만권 돌파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에따라 8월 28일~30일 조선일보, 한국일보 지방판과 대구일보, 영남일보는 취재기사를 다루었으며, 9월 4일자 영남일보의 캠퍼스 특집판에는 박찬석 총장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다. “... 지난 94년부터 도서관구입비를 대폭 늘려 최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보유도서가 1백만권을 넘어섰다. 미국 하버드대학이 장서 1백만권을 돌파한 후 세계 최고대학으로 명성을 얻은 만큼, 앞으로 4~5년내 장서 2백만권을 돌파해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경북대 총장의 장서확보에 대한 욕심과 집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항간에는 도서관의 디지털 및 정보화의 바람으로 장서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다. 전산화가 완성되면 모든 장서는 장식물로 퇴락할 것으로 믿는 교수도 없지 않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왜 세계의 저명대학들이 장서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인가. ... 우리 부산대학교도서관은 언제 이 대열 속에 진입할수 있을 것인가.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수님 모두 여기에 관심두실 것을 당부드린다. 100만권의 장서확보를 위해.